

말레이시아 이슬람부흥운동의 정치적 함의*

이경찬**

- I. 서론
- II. 이슬람의 도입과 이슬람 의식의 확산
- III. 이슬람부흥운동의 전개 양상
- IV. 이슬람부흥운동의 정치적 영향
- V. 평가와 전망

I. 서론

말레이시아는 “무슬림국가”이다.¹⁾ 종교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말레이시아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서 규정하고 있다. 모든 말레이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며 이들을 개종시키려는 행위는 법으로써 금지되어 있다.²⁾ 말레이인 이외에 소수의 인도인과 중국인 가운데에도 무슬림들이 있기는 하나 말레이인들의 종교인 이슬람은 복합민족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말레이인

*본 논문은 성심외국어대학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성심외국어대학 외국어통상학부

1) 무슬림국가란 무슬림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반면 이슬람국가는 이슬람법 (Shariah)이 모든 사회질서와 국가통치의 가치 기준이 되며 정치적 경륜을 겸비한 이슬람학자가 종교와 정치의 최고 권위를 갖는 이른바 무슬림공동체 (Ummah)에 기초한 국가를 의미한다. 이런 기준에 의거하여 본고에서는 말레이시아를 무슬림국가로 정의한다.

2) Federal Constitution, article 3(1); article 160(2).

과 비말레이인 사이의 민족간 경계를 구분짓는 동시에 말레이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말레이 반도 내에서 이슬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된 15세기 이후 말레이 사회는 직,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슬람은 비단 종교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말레이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도 지대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이슬람부흥운동의 결과 이슬람은 말레이시아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연구하는 지역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말레이시아 이슬람부흥운동과 그에 따른 제반 정치, 사회적 변화 및 영향을 살펴봄은 말레이시아 현대정치의 거시적 흐름과 향후 정치변동의 방향성을 유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부흥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마하티르 정부가 추진해온 강력한 이슬람화 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왔던 안와르 구속사태는 이슬람화의 명제를 둘러싼 말레이계 정당간의 경쟁적, 대립적 관계에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1999년 총선에서의 빠스 (Parti Islam Se-Malaysia)의 괄목할만한 약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고에서는 먼저 이슬람부흥운동이 촉발된 요인과 배경, 그리고 부흥운동을 주도한 단체들의 활동 및 성격을 분석해본다. 이를 토대로 이들 단체의 점증하는 활동에 따른 변화에의 압력이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정치과정에 투영되는 양상을 이슬람화를 둘러싼 말레이계 정당간의 선명성 경쟁과 각종 선거결과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하여 추적해보며 그 결과로서의 이슬람화의 심화 추세가 향후 정치 변동에 미치게될 영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이슬람 근본주의(또는 원리주의)와 이슬람부흥운동의 개념을 먼저 살펴본다.

원리주의 (fundamentalism)라는 용어는 1920년 미국에서 과격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세속화 반대운동에 처음 붙여졌다. 원래 이슬람에는 이슬람 원리주의 혹은 근본주의라는 용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 서구식 정치질서와 세속주의에 반대하는 일체의 이슬람운동을 자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해석한 서방세계가 이슬람 세계에 대한 자신들의 부당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슬람은 반문명적이고 비인도적이며 위험하다는 논리의 비약으로 확산시

킨 용어이다. 따라서 이슬람 근본주의 또는 원리주의라는 용어보다는 전통적, 관습적 이슬람의 모순을 자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통 신학의 관점에서 이슬람의 교리와 율법, 그리고 경전을 절대시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슬람 개혁주의 (Islamic reformism), 또는 개혁운동이라 함이 더 타당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슬람권에서는 서구의 세속적 가치체계에 대항해서 사회의 모든 가치가 이슬람 중심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특히 종교와 정치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슬람의 신학적 관점에서 이슬람정신과 교리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이슬람부흥운동, 이슬람개혁운동, 또는 이슬람화운동 등의 표현을 쓴다. 동일한 맥락에서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말레이시아의 부흥운동은 철저히 꾸란 (Quran: 이슬람의 경전)과 하디쓰 (Hadith: 선지자 무하마드의 언행록)에 근거한 이슬람식 삶의 확립을 목적으로 이슬람 정신의 강화와 이슬람식 사회체제의 구축을 주장하는 이슬람 종교 단체들에 의한 개혁운동을 지칭한다.

II. 이슬람의 도입과 이슬람 의식의 확산

1. 이슬람의 수용

이슬람은 14세기 초엽 아랍과 인도지역으로부터 온 무슬림 상인들에 의해 말레이 반도에 처음 소개된 이래 말라카 왕국의 번영과 함께 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초기의 이슬람은 기존의 통치체제와 정치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전통적 군주인 술탄들은 여전히 힌두교의 원리에 따라 통치하였으며 19세기 말엽까지 사회 전반의 질서는 전래의 관습인 아닷 (Adat)에 의하여 유지되었다. 술탄들은 이슬람 기구의 설립을 포함한 여하한 형태의 이슬람의 제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에 있어서의 이슬람의 제도화는 영국의 식민지배체제 강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정치적 권한과 행정권이 영국의 손으로 넘어감에 따라 술탄들의 권한은 전통과 관습, 종교의 영역만으로 국한되었다. 정치적 권한의 거세는 술탄들로 하여금 말레이 관습과 종교의 보

호자로서의 자신들의 책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술탄들은 마을 단위의 단편화된 이슬람 기구들을 통합하는 한편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법의 시행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술탄들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하여 위축된 자신들의 입지를 제한적이나마 보전하고자 하였다.

1915년 끌란판 주는 “이슬람종교 및 말레이관습 위원회”(Majlis Agama dan Istiadat Meleayu: Council of Islamic Religion and Malay Customs)를 조직하였다. (Mahmood 1994, 69) 로프(W. Roff)에 따르면 술탄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을 뿐 광범위한 행정권과 강제력까지 갖춘 동 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기구의 출현은 그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Roff 1974, 103) 끌란판의 뒤를 이어 다른 많은 주들도 끌란판과 유사한 형태의 종교위원회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종교위원회는 지방과 마을 단위의 종교교육 및 성직자에 관한 직접적인 관할권뿐만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이슬람의 원리인가에 대한 종교적 해석의 권위까지도 행사하였다. 이 같은 종교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의 결과 이슬람은 점차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후 이슬람은 3년 반 동안의 일제 식민통치기간을 거치며 일본이 중국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말레이 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말레이 민족주의의 상징적 요소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슬람이 상징성을 요체로 한 주변적 요소로부터 말레이시아 정치의 핵심적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슬람부흥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이다. (Mauzy and Milne 1986, 87)

2. 이슬람부흥운동의 확산 배경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람부흥운동의 확산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내적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서구 국가들은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란의 이슬람혁명, 쿠데타를 통한 가다피의 리비아 집권, 파키스탄의 전격적인 샤리아법 시행 등 1970년대 들면서 전개된 일련의 이슬람의 영향력 확대 현상을 이슬람 근본주의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우려의 시각으로 주시하였다. 이 같은 개혁성향의 이슬람부흥운동은 근년에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대 이슬람권 지배력 강화, 세속주의와 서구화에 따른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 보스니아와 캐시미르 같은 분쟁 지역에서의 무슬림 대량박해에 대한 서방의 방관자적 태도 등에 의해 젊은층과 소외계층의 공감을 얻으면서 아랍과 서남아시아권 등 전통적인 주류 이슬람국가의 영역을 넘어 주변부 이슬람국가라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전역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³⁾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의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현상을 설명하면서 크라우치 교수는 유가상승에 따른 중동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나 이란의 이슬람국가 건설 등 대외적 요인들보다는 내적, 사회구조적 요인이 이들 국가에 있어서의 이슬람 의식의 확산과 이슬람부흥운동을 유발시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Crouch 1990, 185) 이슬람부흥운동의 확산 원인과 그 의미를 고유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크라우치 교수의 지적은 이슬람부흥운동의 양상이 지역과 국가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진행,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앞서 언급한 국제적 사건들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지도자들과 젊은 말레이 지식인, 학생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끼쳤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⁴⁾ 오일 달러로 부를 축적한 아랍권 이슬람 국가들은 국제 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이슬람 형제국의 국제정치, 경제적 지위향상에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은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 아랍국들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함께 국제이슬람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untries) 등 국제종교기구를 통한 여타 이슬람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Saravanamuttu 1983, 124)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국제이슬람기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의 외교정책 우선 순위에서 국제이슬람기구를 비롯한 이슬람문명권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 외교정책에 있어서 이슬람의 비중강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준 사건은 아랍국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1974년 6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슬람국가정상회담이었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이슬람권의 관심과 지원도 늘어났다. 리비아의 필리

3) <http://www.dasom.com/religion/5006.htm>

4) 크라우치 교수는 1996년 출간한 그의 저서 *Government and Society in Malaysia*에서는 이란의 이슬람혁명 등 대외적 사건이 말레이시아의 다끄와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Crouch 1996, 172)

핀과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 대한 지원, 선교 및 교육기관 등을 통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물적 지원, 그리고 이란의 이슬람혁명이 미친 심리적 영향 등은 이 지역 무슬림들의 종교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 있어서의 이슬람 의식의 확대 현상은 사회적 변화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의 보편적 가치체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교리와 율법은 이를 수용하는 사회의 독특한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상이한 전개 양상과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슬람부흥운동과 이슬람의 변화하는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합민족국가라는 말레이시아의 고유한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체 인구 가운데 무슬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들로 이루어진 복합민족국가로서 다종족, 다언어, 다종교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독립초기 말라야는 이 같은 민족적 다양성에 더하여 각 민족의 경제적 역할 분담과 그에 따른 소득수준의 격차라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즉, 상업과 무역업 등 근대적 산업부문에 주로 종사하는 중국인과 인도인들이 말레이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한 반면 원주민인 말레이인들은 전근대적인 농업부문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적 빈곤층을 형성하였다. 소득수준의 격차에 따른 민족간 갈등은 1969년 발생한 인종폭동사태의 직접적 동인이 되었다. 1969년 사태로 말레이 정치 지도자들은 민족간의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 인식에 도달하였다. 말레이계가 주도하는 정부는 말레이인들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말레이인들의 경제적 지위와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신경제정책 (NEP: New Economic Policy)을 시행하였다.

인종폭동사태와 뒤이은 신경제정책 시행의 결과 말레이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괄목할만하게 향상된 반면, 중국계를 중심으로 하는 비말레이계의 불만이 고조됨으로써 말레이계와 비말레이계간의 갈등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

되었다. (Vatikiotis 1996, 160) 각각의 민족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민족감정의 약화와 민족간 대립 구도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말레이인들은 경제적 지위 향상뿐 아니라 말레이어, 말레이 전통 및 관습, 그리고 이슬람 등 자신들의 배타적인 정체성 확보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말레이어의 국어화 정책이 점차 성공을 거두면서 말레이어는 더 이상 말레이인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인들의 국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Mauzy and Milne 1986, 87) 이는 말레이어가 더 이상 말레이인과 비말레이인을 구분짓는 준거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써 사실상 이슬람만이 유일하게 말레이인들의 배타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남게 되었다. 이슬람이 말레이인의 윤리의식과 도덕을 규정하고 그들의 단결과 유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이념을 제공해 왔음을 감안할 때 민족적 갈등이 고양되는 상황에서 이슬람에 대한 말레이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이슬람 의식의 확대는 민족감정의 고양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도인 가운데 상당수가 무슬림이고 중국계 가운데에도 일부 이슬람에 귀의하는 신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이슬람은 말레이인들의 배타적 상징이자 확고한 슬로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슬람 의식의 확산은 1970년대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근대화, 도시화, 그리고 말레이인들을 위한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추진과정에서 유입된 서구적 가치가 이슬람에 기반을 둔 말레이인들의 전통적 사고와 마찰을 빚게 되면서 서구의 문물은 전통적, 종교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부도덕한 배교자(背教者)들의 타락한 문화로 낙인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근대화를 주도한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신앙적인 세속적 생활에 비난의 눈길이 쏠리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슬람의 도덕적 가치와 종교적 청결성의 회복을 주장하는 이슬람 부흥운동이 말레이 민중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Mehden 1988, 257) 말레이인들은 이슬람부흥운동을 통하여 타락한 서구문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말레이인과 자신들을 명백히 구분짓는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의 요체로서 이슬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슬람부흥운동의 확산배경에는 교육기회의 확대

현상도 자리잡고 있다. 신경제정책의 시행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들은 기존의 엘리트들과는 성장배경이나 사고, 행동양식이 매우 달랐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인 말라야대학 (Universiti Malaya)내 말레이 학생들의 비중은 전체 재학생의 1/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신경제정책이 시행된 이후 불과 10년 사이 국립종합대학은 7개로 늘었으며 말레이 학생들을 위한 특별입학 쿼터제와 장학금 확대 정책에 힘입어 말레이 대학생들의 상대적 비중은 전체의 2/3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1960년대 초기 말라야대학 학생들은 주로 영어교육을 받은 전통귀족과 엘리트의 자제들이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대와 80년대 학생들의 대다수는 일상생활과 교육에서 말레이어를 구사하는 전통적인 농촌지역 소농가구 출신이었다. 도시지역 출신으로 영어교육을 받은 귀족층 자제들과 달리 전통교육을 받은 빈곤가정 출신이라는 상이한 성장배경을 지닌 농촌지역 출신 학생들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의 농촌 학생들과 공통의 관심사인 이슬람을 주제로 자연스럽게 결집하였다. 그러나 농촌 학생들은 신비주의적이며 형식적 경향을 띠는 자신들 부모 세대의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대학에서 서적이나 강연 등을 통해 새롭게 접하게된 정통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들이 신봉해온 이슬람이 정통 이슬람의 가르침과는 달리 정령신앙의 요소를 간직하고 있는 등 불합리를 발견하게된 학생들은 전통적 이슬람의 잘못된 관행을 배격하고 이슬람 율법과 신학의 원칙에 맞는 생활양식을 구현하기 위해 꾸란과 순나의 가르침을 충실히 준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젊은 여성들 가운데 얼굴 부분만을 제외하고 머리끝에서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가리개인 뚜둥 (Tudung)을 쓰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발끝까지 전신을 가리는 뿌르다 (Purdah)를 착용하는 여성들도 생겨났다. 또한 남학생들 가운데에도 아랍 식의 긴 겂옷과 터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반면 1960년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화려한 서구식 패션과 개방적 라이프 스타일은 급속히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Vatikiotis 1996, 159) 이는 과거 그들의 부모 세대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가시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나 다끄와 (dakwah)⁵⁾ 단체들이 주도한 변화의 내용

5) 다끄와의 원래 어원은 아랍어의 dawa로서 “촉구함, 일깨움, 환기시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이슬람 선교 및 부흥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은 단지 의복 등 형식적인 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 사회 또는 말레이시아 사회 전체를 이슬람의 교의(敎義)에 맞추도록 총체적인 개혁을 추구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III. 이슬람부흥운동의 전개 양상

1. 다끄와 운동단체들의 성격

이슬람 의식의 확산이 어떤 기제와 경로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로 확산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끄와 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람부흥운동은 곧 다끄와 운동 단체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다끄와 단체들은 이슬람부흥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⁶⁾ 대부분의 다끄와 운동 단체들은 비무슬림의 개종보다는 오히려 무슬림들에게 진정한 이슬람의 근본원리를 전파하고 교육함을 주된 활동 목표로 삼았으며 궁극적으로는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표방하였다. (Mauzy and Milne 1986, 88) 이들 단체들은 대외적으로는 비정치, 또는 탈정치노선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인 그들의 활동은 지극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다끄와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서구식 가치와 문화, 물질주의, 과학, 교육, 그리고 서구의 퇴폐적 사조를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7세기의 아랍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형태로 받아들여 초기 이슬람 사상과 사조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주장하며 과거로의 회귀를 촉구하였다.

이렇듯 다끄와 운동 단체들의 목표는 일견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단체들은 그 성격과 인적 구성, 활동노선 등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다끄와 운동 단체들은 그 단체의 활동성향에 따라 폭력적 급진파와 온건개혁파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따라서는 정부로부터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와 독자적인 조직, 재정을 갖춘 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

6) 다끄와 운동단체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 Muzaffar 1987; Anwar 1987; Nagata 1984; Kessler 1980; Means 1978.

체들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질서체제에 비판적인 다끄와 운동단체들은 이슬람법이 모든 사회질서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되고, 꾸란에 대한 지식과 정치적 경륜을 겸비한 울라마 (ulama)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 이슬람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는⁷⁾ 점에서는 개혁주의적인 (reformistic) 공통점을 지니나 이들 가운데에는 오도된 교리로써 신도들을 현혹할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해 폭력의 동원까지도 서슴지 않는 근본주의적 (fundamentalistic) 성향의 단체들도 적지 않았다.

2. 급진적 다끄와 단체

종종 폭력적 방법을 동원한 일부 급진적 종교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 비이슬람권의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이슬람부흥운동은 흔히 극단적이며 과격한 성향을 띠는 위험한 사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도 1970년대 이후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슬람단체들에 의한 유혈폭력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1978년에는 ‘알라의 군대’를 자칭하는 일단의 인도계 무슬림들이 힌두교 사원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약탈에 참여한 무슬림 신도들 가운데에는 대학교 교수와 호주에서 해외 유학 중이던 의대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었다. 1980년 1월에는 말레이 반도 북부 끄다 (Kedah)주의 주도(州都)인 알로스타 (Alor Setar)에서 정부의 농업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가 주지사를 인질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농민들의 시위가 과격화, 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추정부는 통행금지령을 발동하는 한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연방정부는 농민시위의 배후에 이슬람 원리주의 정당 빠스 (Parti Islam Se-Malaysia)가 조직한 불법 시위단체인 Pertubuhan Angkatan Sabillullah라는 조직이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라만 전 수상은 한발 더 나아가 시위주동자들이 이란식 이슬람혁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Means 1991, 71) 이후 급진단체들에 의한 시위는 더욱 과격화하는 양상을 띠면서 급기야 1980년 연말에는 20여명의 무장한 광신적 교도들이 ‘알라는 위대하다’ (‘Allahu

7) Hussin Mutalib 1993, 48.

Akhbar!')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서를 습격하는 사건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캄보디아 출신의 모하메드 나시르 이스마일 (Mohamed Nasir Ismail)이 이끄는 이들은 종교당국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해체를 명령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를 습격한 것으로 밝혀졌다.⁸⁾

급진단체들 가운데에는 비록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지만 오도(誤導)된 교리로 신도들을 현혹하는 이단적 종파들도 적지 않게 생겨났다. 전도(顛倒)주의적 부흥운동 (Dakwah Songsang) 단체로 불리우는 이단 종파로는 아흐마디야 (Ahmadiyah), 카디아니 (Qadiani), 따리캣 무파리디야 (Tarikat Mufaridiyah), 무함마디야 따리카 (Muhammadiyah Tarīqah) 등이 있다. 이들은 대개 마술과 주술적 힘을 믿으며 신비주의를 신봉하여 이슬람당국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일례로써, 파키스탄에서 생겨나 말레이시아까지 그 세력이 확산된 아흐마디야는 종단의 창시자인 아흐마드 (Mirza Ghulam Ahmad)가 스스로 선지자를 자칭하였는데 이는 무하마드가 마지막 선지자라는 이슬람의 근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당국은 아흐마디야를 배교(背敎) 단체로 규정하고 즉각 해체를 명령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들 폭력적 급진 단체와 이단적 종파들의 점증하는 활동은 이슬람부흥운동 활성화의 한 부정적 단면으로서 정부당국의 우려를 낳았다. 1981년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탈적(逸脫的) 이단 성향의 다그와 단체 숫자는 약 40개, 신도들의 숫자는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raclough 1983, 960)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들이 배교적(背敎的) 활동을 전개하거나 또는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회단체법 (Societies Act)과 국내안전법 (ISA: Internal Security Act) 등을 적용, 급진적 이슬람단체들의 활동을 강력히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슬람국가 건설의 이상 실현을 위해 폭력적 수단의 동원도 불사하는 급진 다그와 단체들의 활동은 그 과격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위협은 크지 않

8) 이스마일은 스스로를 구세주라 일컬으며 신비주의적 가르침으로 추종자들을 끌어 모았다. 종교당국은 2주일 이내에 교파를 해체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도들을 종교법정에 회부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나 이스마일은 추종자들에게 불사신이 될 수 있다는 최면을 걸어 경찰서를 습격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New Straits Times, 1980/10/21.

았다. 이들의 폭력적 활동은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불문하고- 급진성향 단체들에 대한 경계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Mauzy and Milne 1986, 88-89) 오히려 정부와 정권에 부담으로 등장한 것은 온건적 개혁 성향의 다끄와 단체와 그들의 정치적 정향이었다.

3. 온건적 개혁 성향의 다끄와 운동 조직과 그들의 활동

종종 폭력적 수단과 이단적 교리로써 문제를 야기시키는 전도(顛倒)주의적 부흥운동단체들과는 달리 순수한 이슬람식 삶의 원칙과 이상 실현을 추구하는 온건적 개혁성향의 다끄와 단체 숫자도 계속 늘어났다. 이 같은 범주의 다끄와 단체들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선교복지협회 (Perkim: Pertubuhan Kebajikan Islam Se-Malaysia), 말레이시아 이슬람청년운동 (ABIM: Angkatan Belia Islam Malaysia), 다룰 아르قام (Darul Arqam), 저마앗 따블리 (Jemaat Tabligh) 등이 있다. 저마앗 따블리가 해외로부터 유입되어 주로 인도계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지세를 확대해 나간 반면 다룰 아르قام과 아빴은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조직되어 말레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대외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반면 이슬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된 빠르킴은 주로 중국인 등 비말레이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과 국제코란낭송대회 등 공적인 이슬람 행사의 주관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는 관변 종교단체로서 다른 다끄와 운동 단체들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

‘아르قام들의 거주지’라는 의미를 지닌 다룰 아르قام은 이상적인 이슬람사회 건설을 목표로 1968년 우스따즈 아샤리 무하마드 (Ustaz Ashaari Muhammed)에 의해 조직되었다. 다룰 아르قام은 1972년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송아이 뻬잘라 (Sungei Penchala) 지역에 학교, 주거지, 기도처, 병원 등을 갖춘 독자적인 이슬람 공동체를 처음으로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1994년 정부에 의해 불법화되기 이전까지 말레이시아 전역에 모두 48개소의 아르قام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FEER 1994/09/15) 이 공동체는 원래 초기의 이슬람종교학교인 뽀독 (pondok)을 모델로 한 것으로 철저히 이슬람의 원칙에 충실하는 독자적 사회였다. 공동

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룰 아르캄 세력은 공장과 기업까지 설립, 운영하였다. 이는 무슬림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이슬람의 원칙에 따라 생산, 제조, 소비되어야 한다는, 즉 무슬림은 할랄 (halal)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에 따른 것으로 경제활동에 요구되는 노동력은 모두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충당되었다. 또한 다룰 아르캄의 신도들은 텔레비전을 부패한 서구 문명의 이기(利器)로 규정하여 철저히 배격하는가 하면 말레이 전통복장과 아랍식 의복을 결합한 모양의 복장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다룰 아르캄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특별한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독특한 신앙생활 양식을 통하여 여타 무슬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Muzaffar 1987, 44-46)

온건적 개혁성향의 다끄와 단체 가운데서도 특히 아빔은 잘 정비된 조직과 튼튼한 재정, 그리고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의 활동으로 주목을 끌었다. 1971년 창립된 아빔은 도시지역의 중산층 말레이인들이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탈(脫)정치를 표방하였으나 정부의 이슬람 정책에 비판적이며 기존 질서체제를 부정하고 반(反) 서구 노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아빔은 이슬람계 야당인 빠스와 이념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궁극적으로 아빔이 추구하는 이슬람사회, 이슬람국가 건설의 목표는 불가피하게 현존하는 정치체제와 권력구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초대 총재로 아빔을 11년간 이끌 어온 안와르 이브라힘 (Anwar Ibrahim)은 1974년 학생소요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어 22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으며 다둑 아스리 (Datuk Asri)의 뒤를 이어 빠스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까지 거명되는 반정부 성향의 인물이었다. 이러한 개혁적 성향으로 인하여 아빔은 도시지역에서의 이슬람부흥운동, 특히 말레이 대학생과 해외유학생 출신 청년엘리트들의 이슬람 의식강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아빔은 공공장소에서의 복권 및 주류 판매를 반대하였으며 퇴폐적인 서구문물과 부정부패를 배격하는 한편,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국내안전법과 사회단체법 (The Societies Act), 종합대학 및 초급대학법 (The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 Act)의 개정을 공공연히 요구하였다. 이 같은 개혁성에 더하여 청년지식인들의 아빔에 대한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아빔은 강력한 영향력을 갖춘 정치적 압력단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정부에게 있어서 다끄와 단체들의 점증하는 활동은 정치적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다끄와 운동단체들은 이슬람 근본원리로의 회귀를 주장하였으므로 말레이 무슬림들은 이들의 활동을 지극히 이슬람의 교리와 원칙에 충실한 신앙적 행위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슬람 교리의 해석과 종교법의 준수를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부당국에게 있어서 종교개혁단체들의 활동 증가는 곧 정부가 이슬람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물질적 가치를 퇴폐시키는 다끄와 운동 단체들의 활동은 신경재정책으로 대표되는 근대화정책을 통해 말레이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려는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끄와 단체와 이슬람 정당인 빠스와의 연계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이슬람이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는 양상으로까지 전개되었다. 정부는 다끄와 운동 단체들이 빠르게 대중적 공감을 얻으며 활동의 저변을 넓혀 가는 데에 상당한 정치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IV. 이슬람부흥운동의 정치적 영향

1. 정치적 갈등구도의 변화

1969년 인종폭동사태 이전의 말레이시아 정치체제는 독립당시 각 인종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간의 타협과 합의에 기초한 협의민주주의체제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정치적 갈등구도는 기본적으로 말레이 대 비말레이의 인종대결구도로 전개되어져왔다. 그러나 인종폭동사태는 정치체제의 중앙집권화와 경제정책의 근본적 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들면서 과거 인종간 분업구조에 근거한 동맹당(The Alliance) 체제가 국민전선(NF: National Front) 체제로 대체되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동맹당 체제하에서는 연립정권의 유지를 위해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연립구도를 깨지 않는 일정 한도 내로 자제해야 했으므로 정당간, 그리고 정치 지도자 사이에는 최소한의 협의와 공조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반면 국민전선 체제하에서 말레이시아의 정치는 말레이 정당인 말

레이민족연합기구 (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가 여권연합 내의 여타 인종정당들을 한계정당으로 전락시키면서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말레이계의 절대우위 체제로 전환되었다. 특히 경쟁력있는 말레이 자본가 육성이라는 명분 하에 정권과 유착된 일부 소수 그룹에 대해서만 경제적 특혜를 집중시킨 정부정책의 결과 말레이계 내에서도 상당한 부를 축적한 신흥자본가 집단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이들은 기존의 '부미뿌뜨라' (bumiputras: sons of soil) 가운데서도 암노와의 연고와 유착을 존립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암노뿌뜨라' (Umnoputras: sons of UMNO)로 불리워졌다. (S. Ahmad 2000, 3) 암노뿌뜨라의 등장은 말레이계 내에서도 계급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로써 1970년대 이후의 정치적 갈등구도는 과거와 같이 말레이 대 비말레이의 단선적 구도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 정권에 대한 도전이 말레이계 야당으로부터, 또는 정권 내부로부터도 나타나는 말레이계간의 복합적인 경쟁 형태로 치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말레이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이슬람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결국 이슬람부흥운동은 말레이인과 비말레이인, 또는 무슬림과 비무슬림간의 경계를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슬람의 교리와 원칙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통해 말레이인을 내적으로 구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소병국 1997)

이렇듯 이슬람을 매개로 정치권력을 둘러싼 말레이계내의 경쟁과 갈등은 두개의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어왔는데, 첫째는 말레이계 집권여당인 암노와 역시 말레이계 정당으로서 이슬람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빠스간의 경쟁이었다. 과거 거대 여당과 맞서는 빠스의 주된 선거전략은 말레이인들의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슬람국가 건설을 정강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빠스는 이슬람이라는 이슈를 자신들의 유일한 지지 기반인 말레이인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었다. 그러나 1978년 국민전선으로부터의 축출을 계기로 빠스는 선거전략을 전면 수정하게 된다. (Mau & Milne 1986, 89) 말레이 무슬림들의 지지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원되던 이슬람이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빠스는 이슬람법의 도입과 이슬람국가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말레이인들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정부여당이 근대화라는 미명으로 말레이인들의 고귀한 종교적 신념과 정신적

가치를 희생시켜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사회 전반에 거세게 불어닥친 이슬람부흥운동의 열풍을 자기 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 빠스는 이슬람부흥운동의 주도세력인 아빌과 연계하여 이슬람부흥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산시킴으로써 전통적 지지 기반인 말레이 농촌지역에서의 암노의 지위를 크게 위협하였다. 정통 이슬람정당임을 주장하는 빠스의 공세에 맞서 암노는 기존의 소극적인 이슬람 정책기조를 탈피하여 적극적인 수용과 개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둘째, 암노의 지도부는 비단 빠스로부터 뿐만 아니라 암노 내부로부터도 이슬람화 정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이중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새롭게 암노에 입당한 대다수 젊은 당원들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거 말레이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은 스스로 무슬림임을 자처하면서도 그들의 정치철학이나 정책성향은 정통 이슬람보다는 오히려 명목상의 이슬람교도 성향을 띠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⁹⁾ 그러나 이슬람부흥운동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하는 것에 비례하여 암노의 정치지도자들은 이슬람의식이 강하면서도 사회적 신분상 도시중산층이 주를 이루는 대다수 신입 당원들이 정부의 이슬람 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요 선출직 당직을 희망하는 당 정치지도자들은 당원들의 성향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과거와는 달리 신실하고 정직한 정통 무슬림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몰두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말레이인들의 지지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암노가 말레이 정체성의 요체인 이슬람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변화에의 요구와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암노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슬람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신경계정책 시행과정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강요받아 왔다고 생각하는 중국인과 인도인 등 비말레이계는 점증하는 이슬람의 영향력 강화현상이 말레이계의 정치권력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슬람국가 건설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늘게 되었다. 이렇듯 이슬람 의식의 강화가 말레이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던 반

9) 이를 가리켜 Crouch는 주말에만 교회에 나가는 “주말교도”(church-on-Sunday)에 비유하였다. (Crouch 1990, 189)

면 이슬람의 영향력 확대로 위기의식을 느끼게된 비말레이계 국민들은 자신들의 인종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2. 암노 정부의 대응: 이슬람 정책의 강화

이슬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증함에 부응하여 정부는 일련의 이슬람과 관련한 조치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암노 정부가 취한 최초의 상징적 조치는 정규 기도시간을 알리는 아잔 (azan) 방송을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하여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서 이슬람의 교리와 율법을 소개하는 종교관련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도입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정부가 이슬람에 대하여 취한 초기의 조치들은 이단적 종파들을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이슬람 율법의 해석 권한을 가진 술탄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등 지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것이었다. 정부는 이슬람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이슬람이 정치 이슈화되는 것을 더 경계하며 이슬람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반면, 빠스는 말레이계 정당인 암노가 비말레이 정당들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말레이인들의 권익과 이슬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저버렸다고 주장하였다. 이슬람부흥운동이 점차 확산되는데 반하여 암노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빠스의 공세로부터 더욱 수세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1981년 7월 후세인 온 (Datuk Hussein Onn) 수상이 건강악화로 은퇴하고 마하티르 부수상이 정권을 승계한 것을 계기로 암노는 보다 적극적인 이슬람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마하티르 정부가 공세적 대응으로 정책을 변경하게 된 것은 말레이인들의 정서에서 이슬람이 차지하는 상징적 중요성과 점증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경우 더 이상 이슬람을 빠스의 전유물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사회 전반의 이슬람 의식 확산이라는 상황변화를 맞아 이슬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마하티르는 빠스의 거센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다 강력한 이슬람화 정책에 있다고 결론짓고 이슬람과 관련한 당의 정책방향을 적극적

인 대응으로 전환하였다. 지나치게 급격한 이슬람화 정책 추진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압노 정치지도자들이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할 정도로 마하티르의 이슬람화 드라이브는 강력하였다. 일례로써, 라만 전임 수상은 복합 민족국가로서의 말레이시아의 특성을 무시한 지나치게 강력한 이슬람화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New Straits Times 1983/02/09) 마하티르가 이렇듯 강력한 이슬람화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권연합 내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말레이인들의 정체성 강화 욕구를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통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비무슬림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마하티르의 이슬람화 정책 드라이브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었는데, 첫째는 강압적인 통제 (coercion) 방식이었다. (Milne & Mauzy 1999, 85-88)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격한 반정부적 성향의 활동을 전개하거나 종교적 이단성 (異端性)을 띠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압적인 통제방식이 동원되었으며 다룰 아르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외과적인 제거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마하티르 정부는 교세가 확장되는 것에 비례하여 다룰 아르캄의 활동이 종교 영역을 넘어 정치세력화 움직임이 점차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1994년 8월 26일 다룰 아르캄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즉각 해체를 명령하였다. 그에 앞서 아샤리는 자신이 선지자 무하마드와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음 칼리프가 말레이시아에서 나올 것과 메시아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기도 하였다. (FEER 1994/09/15)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샤리는 마하티르와 안와르가 2년 내에 실각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당장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자신이 마하티르보다 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정부로 하여금 다룰 아르캄을 정치적 위해 요소로 규정토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94년 9월 말레이시아 당국은 태국 북부지역에 은신해 있던 아샤리를 쿠알라룸푸르로 압송하였다. 아샤리를 비롯한 다룰 아르캄의 지도부가 자신들의 종교적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석방된 직후에도 정부는 18명의 다룰 아르캄 전 멤버들을 다시 체포하는 등 이슬람 단체들의 정치세력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슬람의 정치적 자원화, 즉 특정 집단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슬람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력한 대처의지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다분히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모토로 압노를 압박해오는 빠스를 의식한 것이었다.

둘째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는 세속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이슬람 정당으로서의 압노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경제개발과 그를 통한 말레이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당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던 압노의 지도자들은 이슬람이 당의 최고 목표이며 이는 창당 이래 변함없이 지속되어온 사실임을 새삼스레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마하티르는 압노의 투쟁이 이슬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말레이인들의 권리, 이슬람, 그리고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말레이정당으로서의 압노의 근본 목적임을 선언하였다. (Mauzy and Milne 1986, 90) 과거에는 성장일변도의 경제발전만이 강조되던 것에서 벗어나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도외시한 발전은 무의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발전은 반드시 이슬람의 가치추구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졌다.

이슬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부심하던 압노는 1982년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안와르 아빔 총재를 전격적으로 포섭 (co-opt), 영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슬람화의 방법론을 둘러싼 빠스와의 명분 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안와르 자신은 빠스 대신 압노 행을 택한 이유로 야당에서보다는 직접 체제 내에 진입하여 자신의 종교적 이상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여당 내의 '제 3의 세력'으로서 이제까지 자신이 추구해온 이슬람 전도자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Rajendran 1993, 15) 안와르의 압노 영입은 이슬람화를 둘러싼 두 정당간의 경쟁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정도로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다. 이슬람화에 대한 비말레이계의 불안을 진정시키면서 동시에 말레이민족주의와 이슬람부흥운동의 확산을 주장하는 빠스-아빔 연대에 맞서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온 압노가 이슬람부흥운동을 주도해온 안와르 영입을 계기로 독자적인 이슬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안와르의 압노보다는 빠스의 노선에 더욱 근접한 인물로 빠스의 유력한 차세대 지

도자 후보로까지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그의 압노 입당은 빠스로서는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마하티르가 취한 세 번째 정책 드라이브는 이슬람 교리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의 마련, 즉 제도화 (institution-building) 노력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마하티르 수상인 안와르 영입은 당의 이슬람 정책 변화에 대한 중요한 암시가 되었으며, 이슬람화 정책 추진에서 안와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Means 1991, 100) 안와르 영입 이후 실시된 첫 번째 선거인 1982년 총선에서 빠스는 각각 5석과 18석의 연방의석 및 주의회 의석을 차지하는데 그친 반면 압노는 70석의 연방의회 의석과 196석의 주의회 의석을 얻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총선에서의 압승으로 말레이인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한 마하티르는 이를 배경으로 강력한 이슬람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슬람 교리의 실천을 둘러싸고 빠스 및 여타 다그와 단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압노 내부로부터도 청년조직 (UMNO Youth)을 중심으로 강력한 이슬람 정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슬람에 관한 한 압노의 정책은 더 이상 소극적 대응과 상징적인 양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이슬람화 정책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압노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은 이슬람은행과 국제이슬람대학교 (IIU: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의 설립, 각 대학교에서 이슬람문명에 관한 교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었다. (Mauzy and Milne 1986, 92) 이밖에 초등학교에서의 아랍어 문자 (Jawi) 교육 실시, 라마단 기간 중 각급 학교에서의 급식중단, 종교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 불허, 이슬람교 사양성대학 설립, 이슬람관련 방송 프로그램 확대, 이슬람보험회사 설립, 사원과 기도처 (Surau) 건립을 위한 정부예산 확대, 샤리아 법정의 지위격상 조치 등이 추진되었다. 마하티르의 적극적인 이슬람화 정책은 비단 국내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정책 부문에도 뚜렷이 반영되어졌다. 이를 위해 마하티르 정부는 대 이슬람권 외교를 안보 및 정치외교에 이어 외교적 우선 순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설정하고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쌍무관계 강화와 국제이슬람기구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 이슬람권 다자외교를 전개하였다.

(Ahmad 1990, 270-374; Lee 1982, 516)

이슬람의 율법과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암노의 강력한 이슬람화 정책 드라이브는 이슬람정당으로서의 암노의 대외적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급속한 이슬람화 정책은 이제까지 복합민족국가로서의 말레이시아의 다원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종교에 관한 한 온정적이며 포용적 노선을 견지해오던 과거의 전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비무슬림계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렇듯 정부의 노골적인 이슬람화 정책이 비말레이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자 1997년 6월 정부는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 대학교에서 이슬람관련 학과목을 필수화시키기로 했던 방침을 즉각 철회함으로써 비무슬림들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마하티르에 따르면 이슬람화 (Islamization)란 “헌법에 규정된 비무슬림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경영에 있어 이슬람의 가치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정연 (整然)하게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Kaur 1993, 77-78) 따라서 마하티르는 이슬람화 정책의 추진이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는 등 비무슬림들의 지지세 이탈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듯 암노는 이슬람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빠스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말레이계와 비말레이계 사이에서 적절한 정책적 균형점을 모색해야 하는 난제 (難題)를 안게 되었다.

3. 암노와 빠스의 대립 심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슬람부흥운동의 확산은 공히 말레이 무슬림들의 지지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두 정당인 암노와 빠스 간의 정치적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다음 표는 이슬람부흥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인 1970년대 중반부터 1995년까지 실시된 6차례의 총선 결과를 정당별로 요약한 것이다.

<표1> 연도별, 정당별 선거결과, 1974-1995>

(의석수)

정당	1974	1978	1982	1986	1990	1995
국민전선	135	130	132	148	127	162
UMNO	61	70	70	83	71	89
MCA	19	17	24	17	18	30
MIC	4	3	4	6	6	7
Gerakan	5	4	5	5	5	7
기타	46	36	29	37	27	29
야당	19	24	22	29	53	30
PAS	(14)**	5	5	1	7	7
DAP	9	16	9	24	20	9
Semangat46	-	-	-	-	8	6
기타	10	3	8	4	18	-
계	154	154	154	177	180	192

*자료 출처: Means 1991; Khong 1991; Gomez 1996.

*1974년 선거에서 빠스는 국민전선의 일원으로 총선에 참여함.

특기할만한 내용은 암노가 주도하는 국민전선이 1974-1995년 사이 실시된 모든 선거에서 빠스와 중국계 야당인 민주행동당 (DAP: Democratic Action Party)을 상대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빠스는 이 기간중 실시된 여섯 차례의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행동당에도 훨씬 못 미치는 평균 6석 내외의 연방의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는 이슬람부흥운동의 확산에 따라 말레이 유권자들의 지지가 크게 향상되었으리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빠스가 비말레이인은 물론 말레이 무슬림들로부터도 기대했던 바와 같은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슬람부흥운동의 확산과 그를 배경으로 한 빠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암노가 안정적인 승리를 구가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적극적인 이슬람화 정책의 수용을 통해 말레이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방으로 이슬람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빠스의 급진적 성향을 적절히 부각시킴으로써 비말레이계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양면전략이 주요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하여 암노는 권력과 금권의 동원,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 등의 다양한 법적 조치 강구들을 통하여 총선에서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었다. 암노의 전통적인

선거전략은 유권자들의 안정 회구 성향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인종갈등의 잠재적 위험을 강조함으로써 안정 회구 성향이 강한 중산층 말레이인들과 중국인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선거전략은 오랫동안 암노와 국민전선의 주요한 선거운동 전략이 되어 왔다.

다인종, 다종교 국가에서의 사회적 안정을 이유로 이슬람국가 건설에 유보적 태도를 견지해온 암노에 비하여 빠스는 이슬람국가 건설 주장을 통해 상당수 말레이 무슬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지나치게 급진적인 이슬람 색채로 말미암아 비말레이계의 지지는 애초부터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빠스로 하여금 과거의 근본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 당의 이슬람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전환토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암노를 대체할 정치적 대안세력으로서의 본격적인 부상을 위해 빠스는 1980년대 말부터 조심스럽게 모색해오던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으로부터 다원적 이슬람 정당으로의 노선변경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 이후 빠스의 성격은 과거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전근대적인 지역정당, 종교정당의 구태의연한 이미지를 벗고 도시지역의 말레이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갖춘 현대적 다원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정교일치(政教一致)의 이념에 따라 과거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만으로 구성되었던 빠스의 지도부도 종교지도자인 울라마(ulamas)와 기업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 풀을 적절히 활용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Hussein 2000, 9)

그러나 안와르 축출과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암노 지도부의 갈등사태 직후 실시된 1999년 총선은 과거 20년간의 선거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마하티르는 1999년 총선에서도 민감한 사안인 종교문제와 인종관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빠스가 집권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중국인들은 이제까지 온건 중도 성향의 국민전선 정권 하에서 누려오던 종교와 문화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반면 말레이 무슬림들에게는 중국계 야당인 민주행동당이 힘을 얻게 될 경우 이제까지 신경제정책 정권 하에서 누려오던 말레이인들의 특별한 권리를 포기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여권연합의 절대적인 우세에 맞서 빠스, 민주행동당, 정의당(Keadilan), 말레이시아 국민당(PRM: Parti Rakyat Malaysia) 등 주요 4개 야당은 1999년 6월 사상 최초로 총선에서

의 공동전선 구축을 위한 야당연합 (Barisan Alternatif: 대체전선)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민주행동당 지도자인 림 킷 시앙 (Lim Kit Siang)이 밝힌 바와 같이 빠스의 이슬람국가 건설 목표를 가장 강력하게 비난해오던 민주행동당이 빠스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The Star 1999/11/15) 그러나 주목할 사실은 야당의 공동선거공약에서 이슬람국가 건설 내용이 빠진 것이었다. 이는 다분히 중국인 유권자들을 의식한 빠스와 민주행동당의 전략적 합의의 결과이자 빠스가 정권장악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당의 이념적 정체성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이슬람국가 건설의 모토를 수정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야당연합의 전면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선거 결과는 2/3 의석 수 유지에 성공한 국민전선의 승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전선의 승리는 절반의 승리이자 동시에 절반의 실패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민전선은 일단 총선의 최대 목표였던 2/3 의석 확보에는 성공하였으나 지난 1995년 총선에서 얻었던 162석의 의석 수가 148석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총선 결과 가장 주목할만한 사실은 말레이 유권자들의 투표 패턴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이제까지 편향적으로 암노를 지지해 오던 상당수 말레이인들이 빠스 지지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과거 선거에서 국민전선의 핵심정당인 암노는 도시 지역의 말레이 중산층뿐만 아니라 북부 말레이 벨트 지역의 농어촌 거주 말레이인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얻어왔다.¹⁰⁾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암노는 지난 총선 대비 22석이 줄어든 72석의 연방의회 의석을 획득하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231석에 달하던 주의회 의원 수도 175석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암노는 말레이인 밀집 거주 지역인 프렝가누에서 단 1석의 연방의석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마하티르의 후계자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라잘레이 (Tengku Razaleigh Hamzah) 전 Semangat46 당수를 앞세워 집중 공약을 펼친 끌란탄에서조차 단 1석만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주 의회 선거에서도 빠스가 장악하고

10) 1990년 총선에서 빠스가 39명의 전체 의석 가운데 24석을 차지하면서 끌란탄 주의회를 장악한 이후 끌란탄은 빠스의 주요 지지기반이 되어왔으나 말레이 벨트 지역의 나머지 3개 주인 삐를리스, 끄다, 프렝가누 등 3개 주에서는 암노가 주도하는 국민전선이 계속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여 왔다. 각 주별 선거결과 파악을 위해서는 Rashid 1994, Appendix를 참조할 것.

있던 끌란탄주 탈환에 실패한 것은 물론 말레이 반도 북동부의 뜨렝가누를 새롭게 빠스에 내어주게 되었다.

1999년 총선의 최대 승리자는 빠스였다. 빠스가 연방의회 선거와 주 의회 선거에서 각각 기록한 16.1%와 25.9%의 득표율은 지난 선거에서 기록했던 득표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빠스는 지난 선거에서 8석에 불과하던 연방의회 의석 수를 3배 이상 늘렸을 뿐 아니라 끌란탄과 뜨렝가누 등 2개의 주의회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민주행동당을 제치고 제1야당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빠스는 이밖에 끄다와 삐를리스 주 등 여타 말레이벨트 지역에서도 상당한 득표를 기록하였다. 마하티르의 고향인 끄다에서 빠스는 암노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말레이계의 지지가 암노를 떠나 빠스로 이동하였음을 상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반면 민주행동당은 제1야당의 자리를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1969년 이후 지난 30년간 야당 진영을 이끌어온 림 킷 시앙 사무총장과 까팔 싱 (Karpal Singh) 부총재가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직을 모두 상실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 림이 예견하였던 바와 같이 빠스와의 연합은 상당한 위협을 수반하는 정치실험이었으며 그 같은 실험의 결과가 민주행동당의 몰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말레이 무슬림들의 절대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전선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강화해오던 암노의 부진은 향후 여권연합내의 권력구도와 세력균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국민전선내 정당별 의석 분포에서 비 암노 정당들의 비율이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선 사실은 암노의 위축된 입지를 웅변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마하티르는 독자적인 경제정책과 강력한 지도력, 중국인들의 안정회구 성향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비록 정권 재창출에는 성공하였으나 국민전선의 승리는 중국계의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크므로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국계의 발언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암노는 국민전선 내부로부터는 발언권이 강화된 중국계 정당 (MCA, Gerakan)의 점증하는 요구,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빠스를 중심으로 결집력과 영향력이 더욱 커진 야당들로부터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안와르 사건을 계기로 조직화되기 시작한 시민사회의 저항운동과 정치적 자각은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통제나 억압정책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서

이 같은 상황변화는 실질적인 개혁에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V. 평가와 전망

야당세력, 특히 말레이계 이슬람 정당인 빠스의 정치적 부상이라는 결과를 낳은 1999년 총선은 향후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람화의 방향성을 추정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빠스가 민주행동당을 제치고 원내 제1야당으로 등장함으로써 말미암아 사상 최초로 말레이계 여당과 말레이계 야당이 전면에서 경쟁하는 말레이계 무슬림 정당들에 의한 의회의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여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비말레이계에게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말레이계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둘러싼 암노와 빠스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어느 정당이 말레이 무슬림들의 권익을 진실로 대변하는 정당인가를 둘러싼 선명성 경쟁은 불가피하게 이슬람 색채의 강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레이 무슬림들의 지지를 되돌리기 위하여 암노는 이슬람이라는 변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암노가 세속적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슬람을 둘러싼 논쟁에서 빠스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안와르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외 이슬람권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오던 안와르의 축출로 암노는 가장 강력한 이슬람 카드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 무슬림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었다. 이로써 암노는 다시 한번 무슬림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점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후계자 지명을 둘러싸고 고심하던 마하티르가 최종적으로 바다위 (Abdullah Ahmad Badawi)를 선택하게 된 것은 비단 Mr. Clean이라는 그의 청렴성을 높이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바다위가 존경받는 이슬람 신학자 가문 출신으로 이슬람학을 전공한 그의 종교적 배경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S. Ahmad 2000, 9).

이슬람 정책에 관한 한 빠스도 일정한 변화에의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슬람국가 건설목표를 야당의 공동선거공약에서 배제한 사실에서 확인되듯 이미 변화의 징후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빠스는 1990년대 중

반 이후부터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색시키기 위한 조심스러운 노력들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같은 노력은 비무슬림 정당들과의 연대 모색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빠스가 암노를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국 정당화의 과제와 함께 여타 인종정당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빠스가 여전히 말레이 무슬림들의 지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정당으로서의 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진정한 대안정당으로서 발전하고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빠스의 정강정책에 대한 비무슬림, 특히 중국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그같은 필요는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으로서의 과격한 이미지를 벗고 보다 세련되며 유연한 정당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지난 30여 년간 활발히 전개된 이슬람부흥운동과 마하티르 정부의 강력한 이슬람화 정책에 힘입어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람의 영향력은 크게 증대되었다. 현재진행형인 이슬람화의 과정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지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지속적인 이슬람의 영향력 증대 현상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이슬람국가 건설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슬람국가 건설과 관련한 이 같은 부정적 전망은 무엇보다도 말레이시아 사회 구성상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다언어 사회로서 비무슬림 인구가 전체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슬람국가 건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무슬림들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그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물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나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빠스의 이슬람국가 건설요구에 대항하는 암노의 유일한 대응논리이기도 하다.

이슬람국가 건설이 난망(難望)하다는 전망의 두 번째 근거는 모든 무슬림, 또는 모든 말레이인들이 예외 없이 이슬람국가 건설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암노 지지자들이 성급한, 그리고 전면적인 이슬람국가 건설을 원치 않는 것은 그들이 현행 시스템 하에서 누려온 경제적 풍요로움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지난 30여 년간 놀라울 정도의 빠른 경제성장세를 시현하여 왔다. 많은 말레이인들은 이 같은 경제성장과 서구식 모델에 근거한 안정적인 정치, 사법, 사회제도의 혜택을 받아왔다. 빈부격차의 심화와 새로운 경제적 갈등구도의 형성 등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신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던 말레이인들이 불확실한 정치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 기존 시스템의 전면적 교체를 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말레이 사회의 중심 축을 형성하는 정치 엘리트와 중산층들은 현재의 시스템이 그들의 이익과 욕구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인종폭동사태 이후 실시된 모든 선거에서 암노가 주축이 된 여권연합이 계속적으로 승리해온 사실에서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인들의 지지에 존립근거를 두고있는 암노는 말레이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말레이와 이슬람에 관한 보다 명확한 태도 표명과, 나아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인 이슬람화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1999년 총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말레이 무슬림들의 지지를 둘러싼 암노와 빠스간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슬람은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변동의 파장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러한 정치과정에서 이슬람 사상과 문화에 대한 말레이인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시되지만 다민족 국가라는 말레이시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정치적 균형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슬람국가 건설의 전망은 요원(遼遠)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 소병국. 1997. "말레이시아 이슬람부흥운동의 발전과 침체 (1970-1997)." 『동남아연구』 6: 139-169.
- 이경찬. 2000. "1999년 말레이시아 총선: 평가와 전망." 『말레이세계연구』 2000년 봄.
- 양승윤 외. 1998. 『동남아학총서 4: 말레이시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홍석준. 1995.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 1995』. 서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 Ahmad, Mohd Yusof Bin. 1990. "Continuity and Change in Malaysia's Foreign Policy: 1981-1986." Unpublished PhD Thesis, Massachusetts: Tufts University.
- Barracough, Simon. 1983. "Managing the Challenges of Islamic Revival in Malaysia." *Asian Survey*, 23, 8 (August), 958-75.
- Chandra Muzaffar. 1987. *Islamic Regurgence in Malaysia*. P.J., Selangor: Penerbit Fajar Bakti.
- Crouch, Harold. 1982. "Malaysia's 1982 General Election."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_____. 1990. "The Politics of Islam in the ASEAN Countries." Alison Broinowski, ed. *ASEAN into the 1990s*. London: MacMillan Press.
- Gomez, Terence E. 1996. *The 1995 Malaysian General Elections: A Report and Commentary*. Occasional Paper.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Kaur, Amarjit. 1993. *Historical Dictionary of Malaysia*. Metuchen, N.J.: The scarecrow Press.
- Kessler, Clive S. 1980. "Malaysia: Islamic Revivalism and Political Disaffection in a Divided Society." *Southeast Asia Chronicle*, 75 (October), 3-11.
- Khong Kim Hoong. 1991. *Malaysia's General Election, 1990: Continuity, Change and Ethnic Politics*. Research Notes and Discussion Paper, No. 74.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Lee, Kyung Chan. 2000. "Managing Crisis in Mahathir Way and the Prospects for Political Changes in Malaysi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Economic Crisis in Southeast Asia and Korea: Its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mpacts, held on 17-19 February 2000.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 Lee Poh Ping. 1982. "The Indochinese Situation and the Big Powers in Southeast Asia: The Malaysian View." *Asian Survey*, 22, no. 6 (June).
- Mahmood, Norma. ed. 1994. Rethinking Political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Kuala Lumpur: University of Malaya Press.
- Malaysia. 1971. The Second Malaysia Plan, 1971-1975. Kuala Lumpur: National Printing Department.
- Malaysia. Federal Constitution.
- Mauzy, Diane K. 1983. "The 1982 General Elections in Malaysia." *Asian Survey* 23, 4 (April).
- _____ and Milne, R. S. 1986. "The Mahathir Administration: Discipline through Islam." Bruce Gale. ed. Readings in Malaysian Politics. Petaling Jaya, Selangor: Pelanduk Publications.
- Means, Gordon P. 1991. Malaysian Politics: The Second Generation.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8. "Public Policy Toward Religion in Malaysia." *Pacific Affairs*, 51 (Fall), 384-405.
- Mehden, Fred R. von der. 1988. "Islamic Revivalism in Asia: Malaysia and Indonesia." Shireen T. Hunter. ed. The Politics of Islamic Revivalism: Diversity and Unity.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Milne, R. S. and Mauzy, Diane K. 1999. Malaysian Politics under Mahathir. London: Routledge.
- Nagata, Judith. 1980. Religious Ideology and Social Change: The Islamic Revival in Malaysia." *Pacific Affairs*, 53 (Fall), 405-39.
- _____. 1984. The Reflowering of Malaysian Islam.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Rahman, A. Rashid. 1994. The Conduct of Elections in Malaysia. Kuala Lumpur: Berita Publishing Sdn. Bhd.
- Rajendran, M. 1993. Mahathir Mohamad: Prime Minister of Malaysia. P.J., Selangor: IBS Buku.
- Roff, W. ed. 1974. Kelantan: Religion, Society and Politics in a Malay State.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Saravanamuttu, J. 1983. *The Dilemma of Independence: The Decades of Malaysian Foreign Policy 1957-1977*. Penang: Universiti Sains Malaysia.
- S. Ahmad Hussein. "The Political Impacts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Malaysia: Impetus for Political Reform?"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Economic Crisis in Southeast Asia and Korea: Its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mpacts, held on 17-19 February 2000.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 Vatikiotis, Michael R. J. 1996. *Political Change in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 Zainah Anwar. 1987. *Islamic Revivalism in Malaysia: Dakwah Among the Students*. P.J., Selangor: Pelanduk Publications.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15, 1994.
- New Straits Times, 21 October 1980 & 9 February 1983.
- The Star, 15 November 1999.
- <http://www.dasom.com/religion/5006.htm>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Islamic Revivalism in Malaysia

Kyung-Chan Lee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understanding of Islamic revivalism, Islamization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in Malaysia. Since the mid-1970s Malaysia has experienced progressive Islamization, a process which has picked up significant momentum under the Mahathir administration. The Islamic revivalism movement was symbolized by the emergence of a host of dakwah groups. Most of the dakwah groups were aimed at propagating Islamic fundamentalism to Malay Muslims. Many of these groups were avowedly apolitical; nevertheless some of the dakwah themes which emerged had political implications.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ruling party, UMNO, were concerned that these dakwah groups if they became too popular, would not only set back governmental development efforts designed to uplift the economic position of the Malays, but also may threaten their political supremacy. All of this made UMNO and the Barisan Nasional government understandably nervous. They responded initially to the threat by making symbolic concessions to Islam. After Mahathir took office as Prime Minister in 1981, however, the government response gradually changed. UMNO leaders apparently decided that the only way to meet the Islamic challenge was with more Islam. It was in this

context that Islamization has been accelerated in Malaysia with an increasing political significance. Now it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ve factors on the direction and scope of political changes in Malaysia.

Despite its increasing speed of Islamization, however, when we consider Malaysia's multi-ethnic, multi-cultural, multi-linguistic and multi-religious characteristics, prospect for the establishment of Islamic state seems to be rather uncertain.

<Key Words>

Dakwah, Malaysia, Islamization, Islamic Revivalism Movement